

## 여호수아(8) 여호와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 ■ 본문

수 8:3-9

### ■ 시작 찬송가

279장(통 337장)

### ■ 헌금 찬송가

370장(통 455장)

### ▶ 아간의 죄

아간은 여리고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선악과의 문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먹는 것과 같습니다. 원어를 보면 선악과를 따먹을 때의 죄의 모습과 같은 동사가 사용됩니다.

아간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도둑질하여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2018.08.12. 주일찬양예배 중)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40년의 광야생활을 마치고 들어온 가나안 땅에서 처음 마주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곧이어 마주한 작은 아이성을 향해 호기롭게 나아갔지만 패배하고 맙니다. 실패와 패배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점검하며 여호와와의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우리도 실패의 자리를 만나곤 합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 두 번째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 다시 일어나다

여리고의 승리 고취된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패배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스스로를 점검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의 패배로 얻은 은혜가 있다면 바로 그들의 큰 잘못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다음 기회가 영원히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기회라는 엄중한 마음으로 갖고 주님이 주시는 다음의 기회를 반드시 잘 사용해야 합니다.

### (1) 패배의 원인

하나님은 겸손히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에서 패배한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다른 것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아간의 죄에서 돌이키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번째 기회를 얻었을 때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 6:18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수 7:21(상)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이백 세겔과 그 무게가 오십 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리고 또 하나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곧 실패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은 성공했을지라도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잘 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잘 된 것에 있어서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아이성의 패배의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는 열심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이성을 올라갈 때 분명히 많은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들은 사람들 우습게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고 가장 쉬운 사람들 몇 명 모아서 보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으면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때로 열심을 다하지 않아도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지 않은 것이 실패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다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 (2) 매복 작전

이스라엘은 작전을 세우고 아이성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들의 작전은 매복작전입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이전의 승리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이 아이성에 있는 수많은 군사들이 이들을 잡기 위해서 나올 것입니다. 성이 비어 있을 때 이 매복해 있던 3만 명의 군사가 성안으로 들어가서 성을 완전히 취하는 것이 이들의 작전이었습니다.

매복 작전은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전쟁의 작전 중의 하나였습니다. 알면서도 당하는 것이 매복 작전입니다. 왜냐하면 적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는 결정적으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수 8:3-4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삼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을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수 8:8(하) 여호와와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마귀도 똑같이 우리에게 매복 작전을 쓰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가 아는 문제입니다. 모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숨겨져 있는 곳에서 우리는 걸려들게 됩니다. 우리의 교만과 방심이 마귀의 매복 작전에 다 걸리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복이라는 단어를 악과 연결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악은 항상 매복하여서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합니다.

잠 23:28 참으로 그는 강도 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작전은 이길 수 없는 싸움, 불가능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의 매복을 이기는 작전은 여호와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 (3) 함께하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매복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밤을 보냅니다. 그는 누가 뭐라 그래도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를 위해서 좋은 텐트를 마련해 줄 수도 있고 그를 위해서 따로 좋은 잠자리를 다른 곳에 마련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했으며 그들과 같이 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수 8:9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벨엘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모든 통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컨트롤 할 수 없습니다. 건강, 잘됨, 연약함도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거하십니다.

마 1: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 여호와와 말씀대로 행하라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통해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스스로를 되돌아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자신들을 넘어지게 한 죄의 무거움과 기도의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다시 아이성을 향해 올라갑니다. 이제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아이성의 작음이 아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을 거울삼아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갑시다.

#### 오늘의 한마디

**오직 여호와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 공동기도제목

1.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대통령, 안보, 외교, 통일 등)
2. 교회를 위해서(교회와 속한 기관 및 봉사자, 교역자, 선교사 등)
3. 해외선교지를 위해서(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4. 국내선교와 기관선교를 위해서(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5. 교회 안의 이웃을 위해서(군장병, 해외유학생, 환자 등)
6. 세상의 이웃을 위해서(새터민, 이주노동자, 노숙자, 소년소녀가장 등)

#### ▶ 3만 명 vs 1만 2천 명

여호수아는 3만 명을 성 뒤에 잠복시켰다. 아이성 인구가 모두 12,000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많은 수이며, 이 많은 군인이 이틀 밤 동안 들리지 않고 잠복해 있었다. 쉽게 이해되지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 아이성 사람들이 방심하여 성 밖으로 나올 때 성을 불태우며 퇴로를 차단하고 승리하였다.